

남부경찰서 신청사로 이전

황령터널 부근 옛 경찰병원 부산분원에서 업무



남부경찰서는 대연3동 황령터널 인근 옛 경찰병원 부산분원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오는 28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남부경찰서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만1,922㎡ 규모로 지난 2006년부터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해왔다. 기존 남부경찰서 청사는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건물로 활용된다.

신청사 이전으로 민원인들과 690여 직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부경찰서 건물은 40년 전인 지난 68년 9월에 건립돼 내·외부가 낡고 좁아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직원들의 사무공간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민원인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 자체 유치장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부경찰서는 앞으로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격훈련장과 유치장 등의 각종 시설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남부경찰서가 이전한 옛 경찰병원 부산분원은 각종 시위집회나 범인검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난 91년부터 건립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시위 감소 등으로 의료 수요가 줄어들고 예산난까지 겹치자 지난 93년 말 전체공정 57%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 98년에는 경찰병원 부산분원 건립 계획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황령터널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방범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으며 건물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왔다.

남구漫評

채규중



공부상 주민등록번호 다르면 “정정하세요”

10월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남구는 지난 1일부터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옛 명칭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현상은 지난 75년 주민등록번호 일제정신과 80년대 호적철회, 90년대 한글과 과정에서 주민등록 및 호적관서의 공부이기 착오 및 출생신고 시 신고자의 실수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불일치자는 혼인신고와 상속, 여권업무, 연금 수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일제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구의 경우 지난 5월 현재 450여명의 불일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해당 주민에게 우편과 전화 안내를 통해 10월말까지 정정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정정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주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무와 학적부의 정정도 대행해 준다.

정정을 원할 경우 일제정비기간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발급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재판절차를 대행해 준다. 재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개선

종이컵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허용

일부 재활용되고 있는 1회용품과 대체재질의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사용규제 되거나 무상제공 금지대상이었던 종이컵과 1회용 종이봉투 등의 물품이 일부 허용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업소에서 종이로만 만들어진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1회용 비닐봉투와 단면 또는 양면이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 된 봉투나 쇼핑백은 이전과 같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607-4451~5(청소행정과)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시책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의 구정을 펼치고 있는 남구가 민선27기 2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증명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각종 증명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과 E마트 문현점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발급시간은 남구청 민원실은 24시간, E마트 문현점은 10:00~24:00시까지다. 단, 남구청 민원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상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운영되며 야간 및 토·일·공휴일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과세증명서(납구), 농지원부 등 모두 13종. ☎ 607-4267

전자민원 G4C

통합전자민원창구인「전자민원G4C」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프린터로 해당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초본교부 등 30여종의 열람·발급과 5,000여종의 민원안내, 650여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 607-4266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다른 지역의 민원서류를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3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민원제도이다.

‘어디서나 민원’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SMS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신청서 작성할 때 SMS통보란에 체크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607-4266

임산부 및 산모 민원택배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에 한하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20종을 전화(FAX)로 신청받아 배달하는 ‘임산부 및 산모 민원택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시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신청후 4근무시간 이내, 어디에서나민원은 신청 후 8근무시간 이내 배달하며 수수료는 민원서류 배달 후 받는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장애인증명 등 20종이다. 문의전화 ☎ 607-4267, FAX. 607-4269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안방에서 신청하세요! http://www.oklife.go.kr

여권사무 달라진다

부산시 일반여권 발급 중단

전자여권 8월25일부터 발급

대리신청제 연장제도 폐지

여권사무가 달라진다. 지난 21일부터 부산시청에서는 일반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구청을 방문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해 주고 있다. 또 남구는 지난달 30일부터 공무원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용여권도 발급하고 있다. 오는 8월25일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대리신청제가 폐지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연장제도도 또한 폐지된다. 단, 올해 6월29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9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한 남구는 6월말 현재까지 모두 1,274건의 여권을 발급해 신규기관 중 가장 많은 발급 건수를 기록했다. 이중 77.6%가 남구민이고 타지역 주민들도 22.4%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607-4872(민원봉사과)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구성

지원기관과 상호교류 협력 역할

남구는 지난 9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 소재 중소기업 대표 30명과 이종철 구청장, 윤창현 부산경제진흥원장, 강수구 수영세무서장, 강창룡 부경대산학협력단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와 지원기관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구는 이날 행사를 통해 남구 중소기업협의회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이어 남구중소기업협의

회 임원을 구성했다. 회장에는 배비룡 영남제분(주)부사장이 추대됐으며 부회장과 총무는 허남요 기영포맥스 대표와 김정상(주)제노 대표가 각각 뽑혔다. 감사에는 정태숙(주)우진IS 대표가 맡게 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관내 100여 중소기업과 기업지원 기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된다.

캐나다 참전용사 유엔공원 방문

한국전 휴전 55주년 추모행사 참석



한국전 휴전55주년을 맞아 유엔공원을 찾은 캐나다 참전용사들이 헌화하고 있다.

한국전 휴전 55주년을 맞이한 추모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과 캐나다 기념동산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국가보훈처 그래픽 부서장과 테드 린만 캐나다 대사, 이종철 구청장, 이석조 유엔기념공원관리처장 등의 내빈과 캐나다 참전용사와 유가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주민 추모행사-헌화-묘역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 추모식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

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 40여명의 참전용사들은 파이프 연주자를 따라 캐나다 기념동산으로 이동해 석포초등학교 가야금 병창팀의 연주를 듣고 자신의 전우와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을 찾아 추모하고 헌화했다.

캐나다 참전용사 에드워드 한센(79)씨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유와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 여성대회

제13회 여성주간 기념 2008 남구여성대회가 지난 2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객진숙 남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단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물고기 병원 개원

부경대학교는 지난 15일 대연캠퍼스 수산과 학대학 뒤면에서 국내 최초로 물고기 종합병원인 ‘수산질병종합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병원은 내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야생조류 방생

경성대학교 조류과는 지난달 30일 나침신 총창과 이종철 구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야생조류방생행사를 갖고 황조롱이 등 14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감사패 전달

남구는 지난 21일 오전 구청청사에서 관내 저소득세대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 전기설비를 해준 한전 남부산지점 방병천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이용은 이렇게...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속의 자연휴식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깨끗하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 나무와 잔디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 담배꽂조와 휴지 등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퇴거해 갑니다.
- 취사행위, 상행위, 사행성 오락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의 바닷가는 수심이 깊고 위험한 지역이므로 수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지 않습니다.
- 공원내에서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시려면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달고 배설물 처리용기를 지참하여 스스로 처리합니다.
- 위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되오니 위의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공원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평화공원은 「2005. APEC 정상회의」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한국전쟁 당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UN 참전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되어 2005. 10월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원입니다. 우리 모두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 나무와 잔디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 담배꽂조와 휴지 등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퇴거해 갑니다.
- 중앙 분수대에 올라가거나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등을 타지 않습니다.
- 공원방문객 외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 취사행위, 상행위, 사행성 오락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공원내에서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시려면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달고 배설물 처리용기를 지참하여 스스로 처리합니다.
- 위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게 되오니 위의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